

우리 들꽃에 바쳐온 질긴 사랑

《한국의 자원식물》 펴낸 우리꽃 연구가 김태정씨

“아마도 나는 전생에 들꽃이었을 겁니다” 올해로 26년째 우리나라 들꽃에 바쳐 온 자신의 맹목적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김태정(54)씨가 최근 《한국의 자원식물》(전5권, 서울대 출판부)을 펴냈다. 해방 후 출간된 이 분야 책 중 가장 많은 종수인 총 2200여종에 이르는 우리 풀과 나무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단순한 식물도감이나 백과사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답사체험이 깔린 생생한 내용

선명하고 산뜻한 7천여 컷의 사진은 이 책을 탐나게 한다. 식물의 전체 사진만 덩그라니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잎, 뿌리, 열매, 꽃 등 중요 부분을 모두 다른 앵글로 찍었다. 꽃 하나도 보통 5~60컷씩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독특한 촬영법 덕택에 독자들은 다양하고 생생한 사진으로 우리 풀과 나무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셈이다.

원고지로 만2천매 분량의 해설 또한 사전식 정보의 나열이 아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줄잡아 3백만Km에 이르는 우리 산야를 직접 답사한 체험이 바탕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다. 한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관상용, 식용, 공업용 등으로 각 식물들의 쓰임새를 중점적으로 밝힌 점도 이 책의 효용가치를 높인다.

시골에 가면 지천으로 널린 ‘머느리 밑씻개’라는 고약한 이름의 풀을 찾아보자. 만지지만 해도 털같이 촘촘한 가시가 있는 이 풀은 옛날 못된 시아버지가 다른 식구들에게 화장실에 가서 벗집을 쓰게 하고는 머느리에게만은 이 풀의 잎으로 밑을 닦게 했다는 웃지 못할 사연을 지니고 있다.

이 풀은 덩굴식물로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줄기는 네모지고 붉은 빛이 돌며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붙는다. 잎은 삼각형이고 양면에 털이 있다. 꽃은 7~8월에 피는데 연한 홍색이며 양성으로 가지 끝에 둥글게 모여 달린다. 10월 열매가 성숙되는데 흑색으로 꽃받침에 싸여 있고 노출된 윗부분은 둥글면서 약간 세모지다. 어린 순은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민간 요법에서는 발육부진, 피부 병, 음, 통경 등의 약재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땅의 식물들이 지닌 특징과 생김새, 쓰임새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가치를 흠뻑 느끼게 한다.

“우리 땅의 풀꽃들과 같이 땀을 흘린 15년쯤 했을까요. 그때부터 그 녀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 있겠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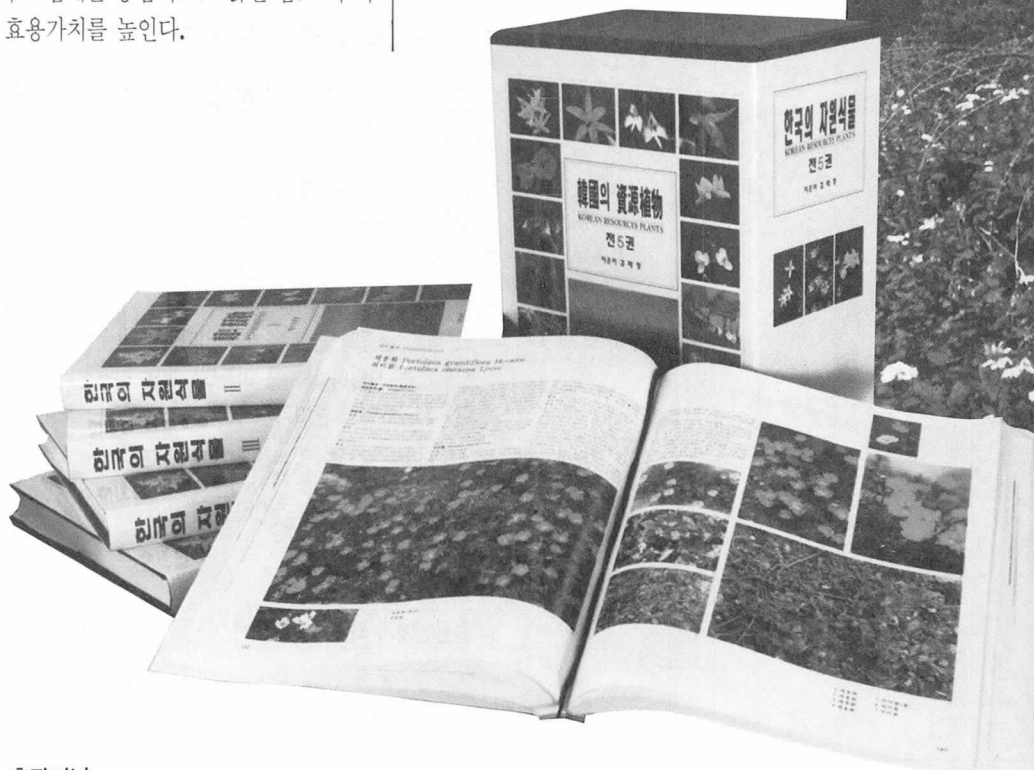
이제는 눈을 감고도 우리 나라 꽃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산야의 꽃들의 분포와 생김생김이 눈에 선하다고 말하는 김태정씨는 요즘처럼 봄꽃이 한창인 때는 눈

코뜰 새 없이 바쁘다.

그의 꽃 지도의 정확성을 익히 아는 각 언론사들의 답사 동행 요청과 “언제쯤 어디 가면 어떤 꽃을 볼 수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기 때문이다. 눈속임이 없이 체험이 바탕된 그의 글과 사진을 찾는 잡지들도 늘어 원고청탁도 자주 받는다.

《한국 야생화 도감》《우리가 알아야 할

강원도 양구에서 촬영하고 있는 김태정씨.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로 본 진화의 매커니즘
파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즈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힌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비위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시냇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 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라키 지음



⑤ 원소의 왕국
물질의 핵심에 대한 본격 해부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의 산화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앳킨스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 계속 발간 됩니다.

동아출판사
영업 (02)861-4818 / (02)853-5608

26년째 우리나라 들꽃에 맹목적인 사랑을 바쳐온 김태정씨가 최근 펴낸 책은 해방 후 출간된 이 분야 책 중 가장 많은 2,200여종에 이르는 우리 풀과 나무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선명하고 산뜻한 사진은 우리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흠뻑 느끼게 한다.

우리꽃 백가지 <휴전선의 야생화> 등 이미 출간된 책들도 20권을 넘어섰는데, 불황을 안타는 그의 꽃이야기에 대한 출판사들의 관심이 그를 책상에 붙들어 맨다.

우리꽃 사랑에 바친 세월

“언젠가 지리산 벚소령으로 답사를 갔다가 산을 허무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방송에 나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로 당장 공사가 중단되더군요.”

이런 경험 이후로 그는 우리 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응한다. 답사할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안타깝긴 해도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꽃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자연을 지키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바람 때문이다.

식물의 삶도 인간의 삶과 다를 바 없어서 나고 자라고 번식하고 사라져간다. 김태정씨가 26년이나 해온 식물 탐사를 멈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설악산에서 발견한 꽃을 이듬해는 다른 곳에서 발견할 경우도 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모습을 바꾸거나 변종이나 아변종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식물들의 끊임없는 변화는 그를 산으로 들로 불러낸다.

향기가 없는 꽃은 색을 화려하게 피워 꽃과 벌을 유혹한다. 꽃이 작은 개다래의 경우 여름에 잎색깔을 허영게 변화시켜 멀리서 보면 마치 꽃인양 착각하게 만들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이렇듯 생존과 번식을 위한 식물들의 지혜는 인간을 뛰어넘는다.

“70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월세를 못 내 쫓겨나면서 땅바닥에 쓰레기더미처럼 내동댕이 쳐진 귀한 자료들을 추스리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꽃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비가 없어 카메라를 들고 전당포를 들락거려야 했던 일, 가족들의 끼니조차 때주지 못했던 일, 밥대신 막걸리 한 사발로 시장기를 달래며 산속을 헤매던 일, 과로가 겹쳐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도 수술비가 없어 곤란을 겪었던 일 등 우리 꽃에 대한 질긴 사랑을 이루고자 그가 치러냈던 무수한 어려움과 비애들을 이제 그는 잊고 싶어 한다.

삶의 외경과 기쁨까지 안겨줘

아직 전셋집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60만 컷에 달하는 슬라이드와 자료들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좋을 자그마한 사무실이 있고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야생화 사랑을 키워가는 야생화연구회 회원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것도 기쁨이다. 전국으로 답사를 다니다 보니 인연맺은 시골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그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인정도 큰 힘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김태정씨에게 삶에 대한 외경심과 기쁨을 안겨주는 가장 큰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 꽃들이다.

“책을 쓰느라 한 1년 제대로 된 답사를 못했더니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김태정씨는 이제 만나야 할 꽃들 생각으로 마음이 바쁘다.

— 박남정 기자